



화성토탈(주), 프린트그래피 사장과 고객사 방문 피니토 사용현황 점검 · 신제품 소개

화성토탈(주)(대표이사 최유진)는 최근 신개념 블랭킷 언더패킹 '피니토'의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프린트그래피의 로베르토 레비(Roberto Levi) 사장과 함께 삼화인쇄(주), 옴프로세스(주), (주)타라TPS, (주)프린피아 등 고객사를 방문했다. 고객사 방문을 통해 피니토 사용현황을 점검했으며, 신제품인 '피니토 드레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료 제공 | 화성토탈(주)

프린트그래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특허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화성토탈(주)는 지난 2010년 가을 프린트그래피사의 신개념 블랭킷 언더패킹 '피니토'를 국내 시장에 소개했다.

신개념 블랭킷 언더패킹 '피니토'

피니토는 신개념 블랭킷 언더패킹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망점품질, 번거로운 패킹 교체작업의 최소화, 블랭킷 수명 증가, 절수자국 개선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재료 한 가지만 바뀌어 얻을 수 있는 품질개선 효과가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베르토 레비 사장은 "피니토의 효과는 실제 고객사에서 인쇄한 인쇄물 비교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동일한 인쇄조건에서 블랭킷 패킹만 종이패킹에서 피니토로 교체한 후 인쇄물 망점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토탈측은 고객사들이 말하는 피니토의 장점은 ▲망점이 잘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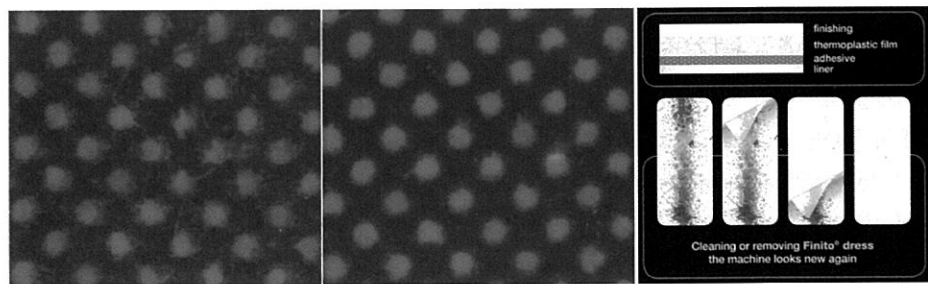
- ▲인쇄물이 달라 보인다 ▲블랭킷이 보호돼 블랭킷 수명이 길어진다 ▲패킹을 갈지 않고 계속 찍을 수 있어서 정말 편하다 ▲블랭킷 세척시간이 단축된다 ▲절수자국이 많이 감소한다 ▲기어마크가 많이 없어진다 ▲패킹이 밀리는 문제가 없다 ▲인쇄표

면에 파우더딱지가 끼지 않는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기계 표면 보호하는 '피니토 드레스'

로베르토 레비 사장은 기계를 항상 새 기계처럼 유지할 수 있는 신제품 '피니토 드레스'도 소개했다. 피니토 드레스는 기계에 옷을 입히는 개념으로 기계 표면에 붙여 표면을 보호하는 접착식 투명 필름이다. 잉크, 코팅액, 접착제 등이 묻었을 때 어떤 세척제로도 깨끗하고 쉽게 닦이는 특수재질로 구성된다. 새 기계 도입 시 또는 기계 청소 후 '피니토 드레스'를 붙여두면 기계 유지관리가 한결 수월해지고 기계의 가치를 한층 높여줘 기계 재판매 시에도 유리하다. '피니토 드레스'는 현재 만로랜드, KBA와 MOU 계약이 체결됐으며, 고모리와의 계약 검토 중에 있다.

화성토탈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고객사 방문은 비단 제품에 대한 현황 점검이나 소개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로베르토 사장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H-UV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종이패킹을 사용했을 경우

피니토를 사용했을 경우

피니토 드레스